

“알고봅시다” 프로야구 주목할 기록들

손승락, 최다 세이브 경신 도전
박용택, 2400안타 돌파 눈앞
김재환 · 박병호, 홈런왕 경쟁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가 23일 개막한다. 네 팀의 신인 사령탑, 창원NC파크 개장 등 팬들의 관심거리들로 가득하다. 주목할 선수와 각종 기록이 야구장을 더욱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어떤 얼굴이 프로야구의 주연이 될 것인가.

◇주목할 선수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파가 대세다. KT 이대은, 삼성 이화주, 투수로 전향한 SK 하재훈 등 해외 U턴 신인선수들이 팀의 즉시 전력감으로 주목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화 노시환, KIA 김기훈, LG 정우영 등 스프링캠프에서 두각을 드러낸 특급 신인들도 대기 중이다. KBO 리그는 최근 두 시즌 동안 순수 고졸 신인인 키움 이정후와 KT 강백호가 선전하며 신인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누가 이들의 뒤를 이을지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신인은 아니지만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선수들도 있다. 롯데 손승락은 KBO 리그 통산 최다 세이브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시즌까지 262세이브를 기록한 그는 삼성 오승환의 최다 세이브인 277세이브에 16세이브만을 남겨 두고 있다. 여기에 역대 최초로 10년 연속 두 자릿수 세이브, 8년 연속 20세이브 달성까지 노린다. 800경기 출장에 28경기를 앞둔 한화 정우람도 4번째로 6년 연속 10세이브에 도전한다. SK 조용천에 이은 통산 두 번째 10년 연속 50경기 출장 기록도 기대할 만하다. 이번 시즌 후 다시 한 번 FA 자격을 얻는 두 선수에게, 그들의 활약으로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KBO 등록선수 중 유일한 70년대생인 삼성 박한이와 LG 박용택은 원소속 구단과 재계약하며 기록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해 삼성 양준혁의 2318안타를 넘어서며 통산 최다 안타를 기록한 LG 박용택은 2400안타에 단 16안타를 남겨두고 있다. 최다 안타와 더불어 자신의 최다 타수인

777타수를 넘어 개인 기록도 경신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박용택과 함께 3번째 FA 자격을 얻었던 박한이는 개인 통산 최다 경기 출장에 도전한다. 2001년 삼성 입단 이후 원클럽맨으로 2097경기에 출장한 그는 올 시즌 127경기에 나서면 종전 최다인 KIA 정성훈의 223경기를 넘어선다. 녹슬지 않은 타격감으로 개인 통산 2200안타(현 2155안타)를 넘어 2300안타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보급자리에 적응 중인 이적 선수도 있다. 두산에서 시즌을 맞이하게 된 배영수 권혁이 주인공이다. 배영수는 개인 140승(현역선수 최다승)에 3승, 500경기 출장에 38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권혁은 올 시즌 개인 최다 홈런 기록에 도전한다. 146홈런으로 삼성 안지민의 177홈런까지 32홈런을 앞두고 있다. 4홈런을 달성하면 통산 2번째 150홈런 투수가 되는데, 육성민 선수 신분으로 5월 1일부터 출장 가능한 점을 고려해도 150홈런은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거포 경쟁, 승자는?

지난해 44개의 홈런을 날려 홈런왕에 등극한 두산 김재환을 시작으로 거포들의 홈런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SK 최정은 4년 연속 30홈런, 키움 박병호는 리그 최초로 4년 연속 40홈런에 도전한다. 매년 20개 이상의 홈런을 치며 7년 연속 20홈런 타자를 꿈꾸는 KIA 최형우, 300홈런 달성에 단 4개의 홈런을 남겨둔 롯데 이대호도 예비 홈런왕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KIA 이범호 역시 2000경기 출장과 함께 개인 통산 350홈런 등의 기록 달성을 눈앞에 뒀지만 부상 회복이 변수다. 한화 김태균은 15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에 도전한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2010~2011 해외 진출) 매년 10홈런 이상을 친 김태균은 올 시즌 10번째 홈런을 치게 되면 빙그레 장종훈, 삼성 양준혁에 이어 3번째 기록보유자가 된다. 100홈런을 향



손승락



김재환



창원NC파크

한 SK 로맥, 삼성 러프, KT 로하스가 펼치는 용병 경쟁도 관심사다.

한화 이용규도 연속 기록에 도전한다. 지난 14년 간 매 시즌 10회 이상의 도루에 성공한 이용규는 2번째로 15년 연속 두자릿수 도루의 주인공 자리를 노린다. 중견수로 포지션을 변경한 한화 정근우를 비롯해 각 팀 간판타자들의 안타, 타점 기록 달성도 예상된다. 정근우는 14년 연속 100안타, 키움 박병호, KIA 최형우, 롯데 이대호는 리그 최초로 6년 연속 100타점에 도전한다. 최형우와 이대호는 NC 나성범과 함께 5년 연속 170안타 달성도 노리고 있다. 특히 롯데 주장이 된 손아섭은 올 시즌 리그 첫 4년 연속 180안타에 도전한다.

◇팀, 감독, 관중... 또 다른 관전 포인트

구단 중에선 삼성이 눈길을 끈다. 삼성은 2800승, 2만4000득점, 4만8000안타, 4600홈런, 2만2000타점 등을 시즌 팀 통산 첫 번째로 달성하게 될 항복들이 유난히 많다.

KIA 김기태, LG 류중일 감독은 1000경기 출장을 앞두고 있다. 처음 감독에 도전하는 KT 이강철,

NC 이종욱 감독과 우승을 이어가야 하는 SK 염경엽 감독, 다시 한 번 롯데의 수장이 된 양상문 감독 등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들이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하다.

묵묵히 그라운드를 지켜온 심판 기록위원의 경기 출장 기록도 달성될 예정이다. KBO 이종훈 기록위원은 지난해까지 2959경기에 출장하며 기록위원 최초로 3000경기 출장에 도전한다. 김태선 기록위원도 3000경기 출장에 55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KBO 김병주 심판위원은 현역 심판위원 중 가장 먼저 2500경기에 출장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심판위원으로는 4번째며, 9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창원NC파크의 개장이 리그 최다 관중 신기록에 도움이 될지 새 구장 효과도 주목해 볼 만 하다.

그동안 새 구장으로 옮긴 팀들은 관중이 늘었다. KIA는 2014년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로 홈구장을 옮겨 2017년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키움 역시 2016년 목동구장을 사용했던 2015년보다 53% 증가한 78만2121명의 관중이 고척 스카이돔을 찾았다. 삼성도 삼성라이온즈파크가 개장한 2016년 팀 내 역대 최다 관중인 85만4117명을 불러들였다.



제24회 순천시 협회장기 클럽축구대회

제24회 순천시축구협회장(회장 조강훈)기 클럽축구대회(최근 이틀간 팔마보조경기장 외 2곳에서 순천한우클럽 외 26개클럽이 참석해 열린 경기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순천시의회 서정진 의장, 순천시체육진흥과 양선길 과장, 역대회장 원로축구인, 전문위원 등 27개클럽 1천여명이 참석했다.

순천시 조강훈 축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내, 외 귀빈, 그동안 같고 닮은 참가 클럽팀 회장을 비롯한 임원 선수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지난해 도민체전 우승, 생활도민체전 우승으로 2연패를 달성해 이 모든 영광을 축구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말했다.

또 “올해는 시 승격 70주년으로 순천방문의해 1000만 관광객 유치 목표로 뛰고 있는 만큼 관광객 유

치에 우리 축구협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인들이 소중하고 단결하여 올 4월 보성에서 열리는 도민체전에서 매너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우승으로 이끌어 순천 축구부의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틀간의 열정으로 제24회 순천시 축구협회장기 시상내역은 입장상: 순천클럽, (1부)우승: 천명클럽, 준우승: 중앙클럽, 3위: 도사클럽, 득점상: 김찬수선수(천명클럽), 최우수상: 김수광선수(천명클럽), 우수상: 이종일선수(중앙클럽), (2부)우승: 왕조클럽, 준우승: 신중앙클럽, 3위: 신우클럽, 득점상: 김찬영선수(왕조클럽), 최우수상: 권종재선수(왕조클럽), 우수상: 장태원선수(신중앙클럽)가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순천=김승호 기자

K리그2 광주FC, 브라질 공격수 윌리안 영입

프로축구 K리그2 광주FC가 브라질 특급 공격수 윌리안(25)을 영입, 화력을 보강했다.

광주는 18일 그리스 1부리그 출신 윌리안과 입단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윌리안은 이탈리아 세리에 A 토리노FC 유스 출신으로 비토리아 세투발(포르투갈), 파나이톨리코스(그리스 1부) 등 선수생활 대부분을 유럽 1부리그에서 활약했다. 통산 기록은 138경기 15골이다. 2014~2015 시즌에는 포르투갈 나시오날에서 한국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27·스포르트 드 랑스)과 6개월간 한솥밥을 먹기도 했다.

170cm 62kg의 날렵한 체격의 윌리안은 빠른 스피드와 돌파, 드리블이 장점이다. 좌우 측면 모두 소화 가능하다.

박진섭 감독은 “윌리안의 스피드



와 개인기량이 팀 전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펠리페와 함께 새로운 스타로 활약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윌리안은 “광주 이적이 가시화되면서 펠리페에게 한국과 광주에 대해 많은 조언을 구했다. 조직적이고 끈끈한 팀워크가 좋아보였다”며 “광주 팀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윌리안은 12일 파나이톨리코스 소속으로 풀타인(1골)을 소화한만큼 곧 출전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란 구레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전길,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묵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